

서평

초국적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평 『번역과 동맹』(푸른길, 2017)

박세훈*



1.

『번역과 동맹』(푸른길, 2017)은 현재 대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병두, 김연희, 이희영, 이민경 4인이 함께 쓴 초국적 이주에 대한 이론서이자 경험연구서이다. 최근 초국적 이주, 혹은 다문화현상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연구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서와 같이 이론적, 경험적 깊이 있을 갖춘 저작은 드물다. 참여한 연구자들의 정교한 이론적 사고와 연구대상 접근에서 성실함도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번역과 동맹』은 우리나라 초국적 이주 연구 최전선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shpark@krihs.re.kr)

우선 최근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방법론에 대한 탐구는 많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의 이주 연구는 그동안 이주민이 워낙 급속히 증가하고 관련 정책이 빠르게 마련된 탓에 방법론적 성찰보다는 경험적 분석과 정책개발에 치우쳐 졌다. 이주현상에 대한 접근방식, 이론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본 연구가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은 학제적 연구의 산물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개별 분과학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협업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본서는 지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교육학 등 서로 다른 학문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공동 작업을 한 결과이다. 공통의 이론을 서로 다른 경험적 사례에 적용하여 그 함의를 논의한다. 이주 현상이 기본적으로 복합적이며 학제 간 협력연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2.

『번역과 동맹』은 5부 10장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시작하는 3개의 장은 초국적 이주연구의 이론으로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하 ANT)을 논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의 장은 이 ANT 이론을 이주 관련 경험연구에 적용한 결과물이다. 경험연구는 음식문화, 신체공간, 미디어테크놀로지, 자녀교육, 이주민지원조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즉 본 연구는 ANT의 가능성을 이론적, 경험적 측면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크게 볼 때 이론적 함의를 추구한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왜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가? 그동안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론들은 이주의 원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서에서 정리하고 있듯

이 이주 이론은 크게 이주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론(배출-흡입이론, 비용-편익분석)과 사회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론(노동시장분절론, 세계체제론), 그리고 행위와 구조를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론(사회연결망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 차원과 구조 차원은 그동안 사회과학 일반에서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 혹은 미시적/거시적 접근으로 이원화된 이론체계를 반영한 것이고, 관계이론은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ANT는 기존의 관계중심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접근방식이다.

ANT는 1980년대 과학철학 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1990년대 들어 포스트구조주의 철학 및 기호학 등을 포용하면서 사회이론 일반으로 확대되었다. ANT는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동식물, 환경, 기술, 제도 등) 간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사회적 지식은 이들 간 관계, 즉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고 확산/쇠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이든 비인간사물이든 이들 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또는 작동 이전에는 아무런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이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ANT는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근본주의를 부정하고 사물들 간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존재론과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본서 31쪽).¹⁾

ANT는 기존의 초국적 이주에 관한 관계이론 접근이 가지는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우선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은 기존의 관계이론의 정태적 측면을 극복하게 해 준다. 초국적 이

1) ‘번역(translation)’과 ‘동맹(alliance)’이라는 본서의 제목은 ANT의 핵심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번역은 행위자-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좀 더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데 필요한 절차이며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맹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번역과 동맹은 ANT적 접근방법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주과정에서 형성/작동하는 행위자-네트워크는 고정된 또는 불변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할 등에 따라 끊임없이 치환되고 변형된다. 최병두(제3장)는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이주자들이 보다 안정된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수정·치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희영(제7장)은 한 행위자가 구축하는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여성성을 꿈꾸던 북한 여성은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식량난민, 입약된 조선족 양딸,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남한의 이주노동자, 밀수상인 등의 서로 다른 정체성의 변위를 경험한다. 즉 성공적인 행위자-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또한 ANT는 행위자 개념에 비인간 사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주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매개적 요소들에 새로운 조명을 가능케 해 준다. 예를 들어 최병두(제4장)는 초국적 이주에서 ‘음식’이 어떻게 행위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주자가 새로운 음식-네트워크에 편입 혹은 재구축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민경(제8장)은 ‘자녀교육’이 몽골 이주자의 이주, 정착, 귀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김연희(제9장)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로 구축되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배제되어 가는지를 논의한다. 이처럼 ANT는 기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주체나 제도, 특히 비인간사물의 영향력에 주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주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3.

ANT가 초국적 이주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ANT의 접근방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국내 ANT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ANT를 하나의 이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론은 검

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ANT가 제시하는 여러 개념, 즉 행위자-네트워크, 번역, 동맹, 블랙박스 등은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나 관점으로 여겨진다. ANT는 그동안 이주연구를 지배하던 이론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다층적, 복합적, 유동적, 매개적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ANT가 대안적인 이주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ANT의 다양한 개념들이 ‘관점의 개발’ 이상으로 초국적 이주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수단은 수단일 뿐 보고자 하는 실체가 파악되었다면 수단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한편, ANT에서 제시하는 비인간사물의 개념도 논쟁적이라 할 수 있다. ANT는 인간 못지않게 비인간사물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이를 행위자-네트워크 분석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례 분석에서 제시하는 비인간사물들의 예, 즉 비자제도, 교육제도, 음식문화, 미디어 등을 ‘비인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제도들은 필자에게는 인간 행위자들이 집단적으로 구축한 구조물이지 독자적인 행위능력을 갖는 행위자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서 이야기 하듯이 행위와 구조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더 나아가서, 자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물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보기보다는 장시간 인간 행위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되어 온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ANT 접근방법이 지나치게 ‘비역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특정 시기에 등장하는 행위자, 특정 시기에 구축된 제도를 절대화하지 않고 그것이 구축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면 ANT가 제기하는 많은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비인간 행위자’ 역시 유사하다. 즉 특정 시기에는 비인간적 행위자처럼 보이는 요소들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인간 행위자들에 의한 구축된 구조물(제도 등)에 불과한 것이다.

4.

이상의 몇 가지 논점은 ANT 접근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단상일 뿐 결코 본 연구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볼 수 없다. 본서는 우리의 초국적 이주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경험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이주 연구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저자들의 열정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 학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도 ANT 및 이주 연구 분야에서 저자들의 더 큰 성취를 기대하며, 관련 연구자들에게 『번역과 동맹』의 일독을 권한다.